



## 인 천 지 방 법 원

### 제 1 - 3 행 정 부

#### 판 결

사 건 2023구합56884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 ○○광역시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6.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2.<sup>1)</sup>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청구취지에는 '2022. 7.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2호증(을 제22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옳기로 보인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상품 종합 도매업, 전자상거래 사업 등을 영위하였던 자로, 2018. 12. 20.부터 2020. 5. 29.까지 ○○ 소재 C유한공사(이하 'C'라 한다)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하 '쟁점 니코틴'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D 등이 제조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용액(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15건 수입하면서,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입 신고를 하고,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원장은 2019. 11.경 「연초 줄기·뿌리 추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의 수입 및 관리 실태」라는 제목의 감사보고서로 ○○청장에 대하여 '수입업자가 연초의 줄기·뿌리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이 사실 연초의 잎에서 추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청 등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의 진위를 심사 또는 조사하지 않아 탈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감사 과정에서 허위 신고 및 탈세 혐의가 제기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수입신고 및 탈세 여부를 심사·조사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청장은 2020. 7. 6. ○○세관장에게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 업체들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하였다.

다. ○○세관장은 2020. 8. 10.부터 2020. 12.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관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



하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연초 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으로 수입 신고함으로써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2. 7. 12.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담배소비세 1,213,725,540원(가산세 280,090,500원 포함), 지방교육세 410,705,950원, 합계 1,624,431,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7.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2호증, 을 제1, 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에 사용된 쟁점 니코틴은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에서 담배 가공 절차는 농가 재배 → 연초점에서 연초 잎 등 수매 → 복고장[이 사건에서는 E유한책임공사(E有限责任公司), 이하 'E공사'라 한다]에서 연초 잎 등 가공, 재건조 → 켈런장에서 등급분류(연초 잎 슬라이스, 길고 짧은 연경, 연초 잎 부스러기) → 켈런제조공장에서 담배 제조 순으로 이루어진다. E공사는 연초점에서 공급 받은 연초를 ④ 슬라이스 연초 잎, ⑤ 길고 짧은 연경, ⑥ 연초 잎 부스러기, ⑦ 폐기 연경 등 4가지 형태로 가공·분류한 뒤, 위 ④, ⑤, ⑥는 담배제조허가를 받은 연초기업에 공급하고, ⑦ 폐기연경은 생물질 생산업체 또는 폐기농산물 처리업체 등에 공급하



면서, ○○의 연초전매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연초 대줄기도 C와 같은 생물질 생산업체 또는 폐기농산물 처리업체에 공급하였다. C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였다.

2) C는 ○○의 연초전매법상 담배제조허가를 받지 않아 연초 잎 및 잎맥을 원료로 니코틴을 생산할 수는 없다. 다만 C는 연초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E공사와 연초 재배 농민으로부터 ○○의 연초전매법 적용을 받지 않는 연초 대줄기를 별도로 공급받아 니코틴을 추출하였을 뿐이고, 쟁점 니코틴 생산에 연초 잎 부분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E공사는 C에게 ㉔ 폐기연경을 공급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 당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는 니코틴이 아닌 살충제와 유기비료 생산의 원료로만 사용하도록 승인받은 것이어서 ㉔ 폐기연경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은 엄격한 처벌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3) stem이나 연경(烟梗)은 연초 잎의 주맥 또는 지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의 대줄기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HS해설서에서 줄기를 stalks와 stems을 모두 사용하면서 주맥을 midribs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stem은 대줄기를 지칭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Stem Nicotine' 역시 '연초 대줄기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뜻한다.

4) 과세요건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나. 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것으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소비세 과세물품에 추가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물품은 위 법률의 개정 전에 수입된 것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4.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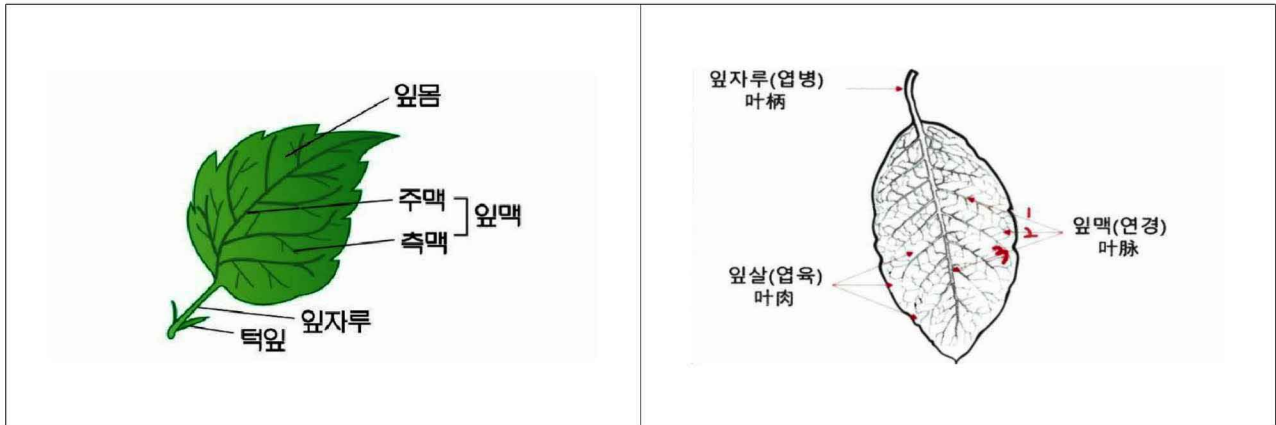
####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0, 12 내지 14, 21호증, 을 제4 내지 8, 10 내지 18, 21, 23,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 1) 연초의 구조와 명칭

연초란 가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식물 자체에 니코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주로 기호품(담배)의 원료로 재배되고 있고, 뿌리와 줄기, 잎으로 구성되는데, 그중에서도 연초, 켈런, 니코틴 원액 등 담배의 재료로 주로 사용 및 재배되는 부분은 잎 부분이다. 연초 잎의 모양 및 명칭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2) ○○의 담배사업 체계 및 규제

가) ○○은 ○○○○공화국연초전매법(이하 '연초전매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담배사업에 대한 국가 전매전영제도(專賣專營制度)를 전면 확립하였는데, 연초전매법의 입법 취지는 연초전매 관리의 실행, 연초전매품의 생산과 경영의 계획적 진행, 연초제품의 품질 제고 및 소비자 이익의 보호,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연초전매라 함은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와 수입·수출 업무에 대하여 독점적 경영, 획일적 관리를 실행하는 제도로써 국가가 연초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전매관리 및 연초전매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법적 규제대상이 되는 연초전매품은 쉐련, 시가, 살담배, 복고담뱃잎, 담뱃잎, 쉐련종이, 담배필터, 연용사속, 연초전용기계를 말한다. 위 법에 따라 ○○ 국무원(國務院) 산하 국가연초전매국(國家煙草專賣局)과 ○○연초총공사(○○煙草總公司)는 전국 담배사업의 인원, 재정, 물자, 생산, 공급, 판매, 국내외 무역에 대하여 집중적, 획일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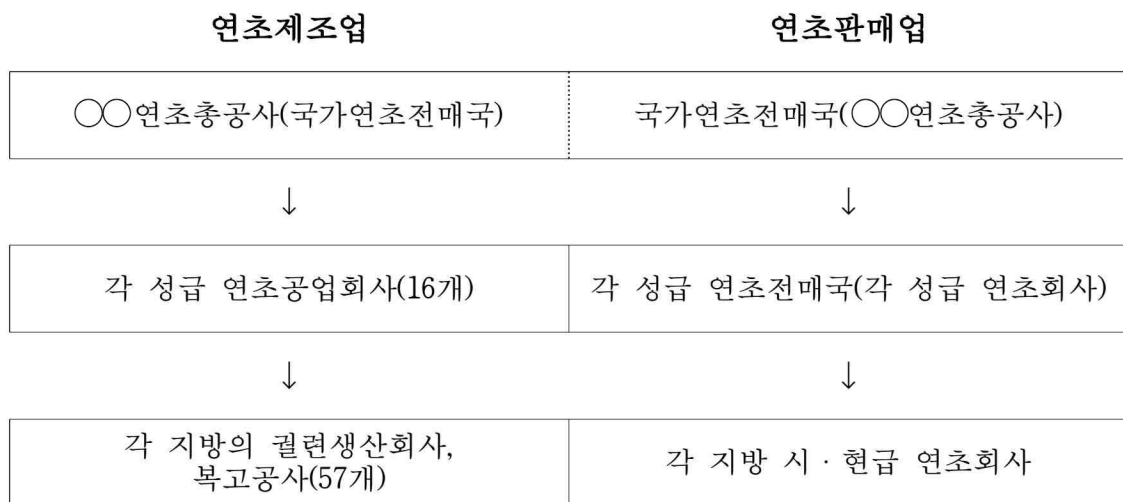
나) ○○담뱃잎세잠정조례는 연초 잎을 수매한 금액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2006. 4. 28.부터 시행되었는데, 연초 잎을 수매하는 회사가 담뱃잎세의 납세자가 되고, 위 조례에서 담뱃잎이란 자연건조 담뱃잎과 열건조 담뱃잎을 말한다.



다) 한편, ○○ 연초전매품의 수입·수출은 각 성급 연초공업기업에 속한 수입·수출부문(또는 기업), 전국 각 항구에서 설립된 수입·수출기업 및 F유한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져 있으나 위 모든 기업은 일률적으로 모회사인 국가연초전매국(○○연초총공사)의 지도를 받으므로 연초전매품의 수입·수출 면에서도 전면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 담배사업(연초제조업과 연초판매업) 조직 체계도]

○○○○공화국 국무원



3) C의 사업분야 등

가) C는 2011. 10.경 설립되어 2012. 10.경 담배폐기물 처리시설로 승인되었고, 화학물질인 니코틴을 생산 및 취급할 수 있는 허가도 취득하였다.

나) C의 회사 소개 PPT 자료에서는 연초 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으로 표시하면서 '담배폐기물로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비료 생산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회사의 장점' 부분에서는 '충분



한 원재료'라는 소제목 하에 '담배폐기물은 연초전매법(tobacco monopoly law)<sup>2)</sup>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는 ○○○성의 폐기 담배처리 센터이며, 합법적으로 원재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C의 홈페이지에서는 '니코틴 추출 폐기물(extracted waste)과 폐기갈간(廢棄 秸秆, crop straw waste)을 사용하여 농자재 제품을 만든다'고 회사를 소개하고, 위 회사가 생산하는 '니코틴 제품(L-Nicotine) 원액은 니코틴 담뱃잎 추출물(Nicotine tobacco leaf extract)'이라고 설명하면서 담뱃잎의 잎맥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라) C는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하여 특허출원신청을 하였으나 최종 거절되었고, 연초 폐기물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하여만 특허출원이 이루어졌다.

#### 4) C와 E공사 사이의 원료 공급계약

가) C는 201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E공사와 '폐기연경처리협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 ○○시(○○市) 연초전매국의 확인·서명을 받아 폐기연경(廢棄烟梗)을 공급받아 왔다. 위 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E공사가 C에 폐기연경을 제공하면 C는 지정된 장소에서 그 형태를 훼손하고 성질을 변환한 후 출고할 수 있고, 분쇄 후의 가루분말 출고 후의 모든 책임을 지며, 미분쇄 폐기연경과 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 연초전매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폐기연경처리협의 내용에는 '연초 대줄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또한 C와 E공사 사이에 체결된 원료공급계약서인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폐기 담배분말 판매 계약서)'는 E공사가 C에게 폐기연초분말계를 공급하는 것

2) 을 제15호증 제5면에서는 담배전매법으로 번역하였다.



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위 서류에는 '폐기연초분말계는 ○○(○○) 재건조 공장의 생산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연경(廢棄烟梗), 제진(除塵) 담뱃재 등 담배폐기물을 설비를 통해 40mesh 이하로 분쇄한 후, 회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담배 폐기 분말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연경(烟梗)'의 의미 등에 관한 ○○ 내 기관 등의 회신

가) ○○의 백과사전(○○ 바이두 백과사전 및 MBA 백과사전)에는 연경(烟梗)을 "담뱃잎의 두껍고 단단한 엽맥으로 잎 무게의 약 25~30%(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 MBA 백과사전은 연경을 영문으로 "Tobacco Stem"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나) ○○의 최대 담배 생산지역인 ○○성의 ○○○○외사관공실은 주○○○○총영사관의 '연경(烟梗)'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2019. 11. 28.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성 상관부문 조사결과, 첨부 <<연초폐기물소각협의>>는 허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연초전매국 발행 연초폐기물관리법의 통지관련>> 규정에 따라 “연초의 줄기(烟梗)”는 구체적으로 초벌건조한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으로서, 재건조 가공 후의 부산물이며, 장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와 단줄기(대략적인 길이는 20mm 안팎): “경말(줄기 끝)”은 물리적 형태변화 후 치수 0.425mm의 가루분말 물질입니다.

다) ○○ ○○청은 2020. 4. 28. ○○ ○○청의 C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

요청정보 I.

○○ 내 회사가 니코틴 또는 담배를 제조, 유통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취득해야 하며 니코틴 생산은 국가 판매 독점국의 감독을 받아야 함. 우리 조사에 따르면 C는 니코틴이나 담배를 제조, 배급, 국외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

요청정보 II.

C는 담배 줄기(tobacco stems)를 수집하고 줄기(stems)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도록 허가



받았음.

C에 따르면, 생산하는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tobacco stems)로부터 생산된 것임.

라) E공사는 2020. 9. 23. ○○ ○○총서(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이

다) 및 ○○○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E공사 서신

- 저희 회사는 담뱃잎 탈엽 재건조 가공회사로 ○○, ○○ 두 개의 재건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경영범위는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해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담배와 담배잎맥으로 분리하여, 잎담배와 길이가 다른 길고 짧은 담배잎맥, 담뱃잎 조각, 폐기담배잎맥 등 네 가지 형태의 제품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중 잎담배와 길이가 다른 길고 짧은 잎맥, 담뱃잎 조각은 위탁가공하는 궤련기업이 회수하며, 폐기담배잎맥은 담배로서의 가치가 없어 ○○ 연초정책 규정에 따라 분쇄 파기한 후(분쇄 후의 과립은 40목 이하여야 함) 출하구역으로 보내 처리합니다. 저희 회사의 생산가공과정은 ○○ 국가 법률법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와 C가 체결한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약>에는 ○○ 재건조공장이 C에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생산과정 중 발생한 폐기 담배 잎맥<sup>3)</sup>, 제진 담뱃재<sup>4)</sup> 등 연초 폐기물로, 설비를 이용해 40목까지 파기한 회수 불가능한 폐기물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재건조공장은 2018년 건조기 담배 잎맥, 제진 담뱃재 등 연초폐기물 전부를 파기설비를 이용해 40목 수준까지 분쇄 파기처리했으며, 그 중 C에 3130.493톤을 제공했으며, 그 외 ○○○ 성내 기타 비료생산 경영허가증을 가진 기업에 2208.568톤을 제공했습니다.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19. 8. 30.부터 현재까지, 우리 ○○ 재건조공장은 C에 분쇄 파기 후의 폐기연초분말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청은 주○○○○공화국○○○○대사관에 '담배 잎줄기(연경, 烟梗)에 대한 정의, 관련 법령' 등의 분석을 요청하였고, 위 대사관은 2020. 11. 18.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3) 폐기연경

4) 제진연회(연초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고체 형태의 부스러기, 을 제10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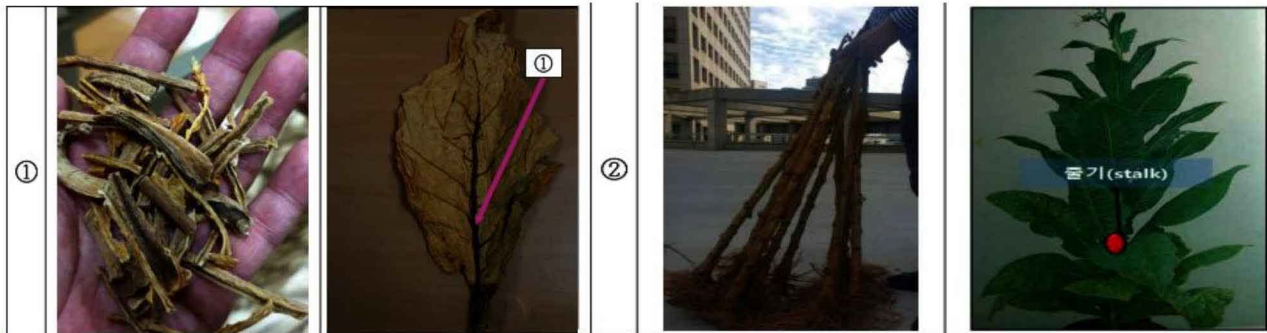


#### 검토결과

- ○○담배전매법과 ○○담배잎세잠정조례에 따르면, 국가의 전매대상 및 담배세 부과대상인 담뱃잎(烟叶)이란 태양건조 담뱃잎(晾晒烟叶)과 열건조 담뱃잎(烤烟叶) 한정되며, 담배 줄기는 포함되지 않음.
- E공사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계부처의 승인 없이는 담뱃잎(烟叶)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음
- 따라서 E공사에서 담뱃잎 재건조가공(复烤烟叶)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뱃잎자루(烟柄)와 담배 잎맥(烟脉, 烟梗) 및 담배 잎편(烟片)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담뱃잎의 재건조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담배 잎맥(烟脉, 烟梗)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니코틴 용액은 담배소비세법상의 담뱃잎을 원료로 제조된 니코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바) ○○세관장은 ○○ ○○총서에 원고와 E공사 사이에 2017년경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약' 계약, 연초의 잎맥(그림 ①)과 연초의 줄기(그림 ②, stalk)를 사진으로 제시하며 폐기연경 및 연경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 ○○총서는 2021. 2. 26.과 2021. 3. 3.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1. 2011년 10월에 설립된 C는 주로 식물 중간재를 추출·판매(미생물 폐기물, 미생물 접종원, 유기비료, 셀레니움비료, 미량원소, 수용성 비료)하고 담배향(맛) 연구·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중략)...
2. 2014. 4. ○○○연초전매국(Hubei Tobacco Monopoly Bureau)은 생물 살충제와 생물 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되도록 C의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압착 후 형태 파괴) 처리를 승인해주었습니다. 연간 총량은 6,500톤 미만이어야 합니다(단계별 이행). 또한 C는 ○○○○공화국의 연초전매법 및 업계관리규정을 충실히 준수해야하며 연초전매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3. 2012. 1.부터 2019. 8.까지, E공사는 폐기연경(waste tobacco stems) 33140.46 톤을 C에 공급하였고 2019. 9.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질의) C와 E공사 사이에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약' 계약에서의 '폐기연경'은 연초의 어느 부분인가요?

답변) C와 폐기연경처리협약을 체결한 E공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폐기연경(廢棄烟梗)은 그림 ①을 의미합니다.

#### 6) C의 입장

가) C는 쟁점 니코틴이 문제되자 2019. 7. 20.경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연초 대줄기)이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2020년에도 '쟁점 니코틴의 원재료는 연경(연초 대줄기)이고, ○○시장에 공급하는 니코틴에는 주맥과 지맥이 있지 않다. 대줄기를 번역할 어휘가 없어서 '연경(STE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각 발표하였다.

나) C는 위 성명서와 관련하여 원고 외 다른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에서 ○○청에게 "니코틴 생산 원재료로 사용하는 '연경(갈경)'은 '연경(stem)'과 동일한 것이고, 위 연경은 E공사로부터 '폐기연경처리협약'을 체결하여 공급받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원재료는 없다. 니코틴의 원재료는 갈경이고, 연초의 가장 굵은 줄기이다.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상세하게 공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폐기연경 추출 특허는 단지 실험실 기술 특허로 경쟁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 7) ○○ 내 담배 관련 현황

가) G공사는 2019. 7. 22. 주○○○○충영사관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1. G공사는 담배를 생산하지 않고, 담뱃잎 이외의 부분은 구매하지 않으며, 담뱃잎 이외 줄기 부분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 G공사는 농가로부터 담뱃잎을 구매해 담배 제조상(○○에서는 담배 제조상 역시 국영 기업에 속하며 관리가 엄격함)에 제공하고 있음.
2. G공사는 담뱃잎 관련 폐기물을 ○○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연초총공사는 연초 잎을 기준 중량(50kg)에 따라 등급별로 가격을 정하여 수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8) 연초 대줄기로부터 니코틴 추출 가능성 및 효율성

가) ○○원 감사 과정에서 니코틴 함량이 연초 잎은 0.5%~5.0%로, 연초 줄기는 0.06%~1.15%로, 연초 뿌리는 0.08%~0.75%로 확인되었다.

나) 국내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H는 ○○청의 요청으로 연초 잎맥과 대줄기의 각 니코틴 수율(收率, 원자재에 어떤 화학적 과정을 가하여 원하는 물질을 얻을 때, 실제로 얻어진 분량과 이론상으로 기대했던 분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니코틴을 연초 대줄기로부터 추출하는 경우 0.03%, 연초 잎맥에서 추출하는 경우 0.39%로 나타났다.

## 나.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1) 관련 법리

구 담배사업법 제2조(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말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4. 1. 21. 법률개정  
으로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 말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담배  
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법 개정  
의 이유는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되도록 하여 전자담배의 허위광고, 품질관리  
소홀 등을 규제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확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  
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  
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그 원료로 하는 한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  
고 해석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  
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23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물품에 사용  
된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피고에 의하여 합리적으



로 수증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쟁점 니코틴을 사용한 이 사건 물품이 담배사업법 제 2조의 담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연경(烟梗)이 연초 대줄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는 C와 E공사 사이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 의'에 기재된 연경(烟梗)이 연초 대줄기를 의미하고, 그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sup>5)</sup>,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폐기연경처리협 의'는 C의 니코틴 원 재료 공급계약이 아니고, 원고가 관세당국에 위 서류를 제출한 것은 위 계약이 C의 니 코틴 원재료 공급계약이라고 인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관세당국이 위 서류를 특정하 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에서 연경(烟梗)의 의미는 쟁점이 아니 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C는 쟁점 니코틴 관련 관세조사에서 '니코틴을 생산하기 위하여 E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를 통해 공급받는 연경 외 에 다른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한 관세조사, 조세심판절차,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기까지의 원고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폐기연 경처리협 의가 C의 니코틴 원재료 공급계약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23호증(사실확인서)은 C로부터 쟁점 니코틴으로 제조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여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주식회사 I 대표 J이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연경(烟梗)의 의미는 주요한 쟁점이 된다.

5) 갑 제1호증(조세심판결정문) 제5면 내지 제6면

6) 24. 11. 20.자 준비서면



(2) 연경(烟梗)의 의미와 관련하여, ○○은 전국 담배사업의 인원, 재정, 물자, 생산, 공급, 판매 등을 집중적·획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품 생산 공정 및 사용되는 용어도 통일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 ○○성의 ○○○○외사관공실은 연경(烟梗)은 '구체적으로 초벌 건조한 연초 잎의 주맥과 지맥으로서 재건조 가공 후의 부산물'이라고 답변하였고, ○○ ○○총서는 폐기연경(廢弃烟梗)이 '연초의 잎맥' 부분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 백과사전의 기재나 주○○대사관의 회신 내용을 보더라도, ○○에서 '연경(烟梗)'은 통상 연초 잎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 ○ 담배 산업계에서 '연경(烟梗)'의 의미가 엇갈리거나 그 용례와 관련하여 혼선이 빚어진 상황은 찾아보기 어렵다[C의 '연초 대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서에는 연초 대줄기를 연경(烟莖, 莖은 '대줄기 경'의 간체자인데, 표기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莖'으로 표기한다)이라고 표기하여 위 연경(烟梗)과 '경'의 한자 표기가 다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내에서 연경(烟梗)은 연초의 대줄기가 아니라 연초 잎의 주맥과 지맥, 즉 잎맥을 의미하는 것이고, C와 E공사사이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약'과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약'에 기재된 폐기연경 역시 연초 잎맥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원고는, 법규의 효력을 갖는 HS해설서에서 줄기를 stalks와 stems을 모두 사용하면서 주맥을 midribs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이 사건 물품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Stem Nicotine'의 stem은 대줄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sup>7)</sup>, stem이라는 표현은 중국어가 아닌 영어이고, C 등이 폐기연경의 의미에 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기한 표현에 불과한바, 앞서 C가 E공사로부터

7) 소장 제32면



터 공급받는 원재료인 '폐기연경'의 의미를 살펴본 이상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 나) C가 공급한 쟁점 니코틴에 관한 판단

(1) C는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를 주요영업업무로 하고, 니코틴이 영업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C가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면 C에게는 원재료인 연초의 대줄기 매입이 주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C와 E공사 사이에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약', '2018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약', E공사의 2020. 9. 23.자 답변에는 C가 E공사로부터 폐기연경을 매입한다는 내용만 나타나 있을 뿐, 별도로 연초 대줄기를 매입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찾을 수 없다.

(2) E공사는 그 영업범위가 연초 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고, 관계부처의 승인 없이는 연초 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초 잎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연초 잎자루, 연초 잎맥, 연초 잎편 부스러기 등 연초 잎의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E공사의 연초 폐기물에는 연초 대줄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C는 연초전매국으로부터 폐기연경 수집과 폐기연경을 이용한 니코틴 생산에 관한 허가를 받았고, E공사로부터 니코틴 추출에 사용될 원재료를 공급받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총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C와 E공사 간 체결된 폐기연경처리협약에 따른 폐기연경은 연초 잎맥 부분을 의미한다. C의 회사 소개 PPT 자료 또는 홈페이지에도 니코틴 원료로 연초 잎맥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칭하여 'stem'이라고 표시하고 그 원료의 사진도 연초 잎의 주맥과 지맥 사진을 함께 게재하여 두었을 뿐 별도로 연초 대줄기를 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는 연초 잎맥을 포함한 연초 잎 폐기물 부분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연초 대줄기를 사용하여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는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① 연초 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이라고 표시하면서 그 부분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는 내용이 담긴 C 회사 소개 PPT 자료(을 제 15호증)는 C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어서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② 오히려 C 홈페이지(갑 제24호증)에는 '니코틴을 추출하는 부분은 담배 줄기(烟茎)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 ○○청은 'C가 생산하는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으므로,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쟁점 니코틴이 연초 잎이 아닌 연초 대줄기로부터 추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 그러나 C 회사 소개 PPT 자료(을 제15호증)는 C의 생산공정, 원료, 연혁 및 성과, 상품 설명, 사업 분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바, 첫 화면에 기재된 회사의 표기와 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를 C 아닌 제3자가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위 소개자료를 C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앞서 본 과세요건사실의 추정을 복멸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도 없다.

② 또한 C 홈페이지(갑 제24호증) '생산원료' 설명란에 니코틴을 추출하는 부분이 '烟茎'(연경, 번역본에는 '담배 줄기'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위 글자가 정확하게 연초의 '대줄기'를 특정하여 지칭하는 단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C 홈페이지 화면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부분을 '烟茎'으로 표기한 설명 바로 아래에는, 담뱃잎이 강조된 담배 재배 농가의 사진을 게시하여 두고 있고, 다른 화면에서는 'C가 생산하는 니코틴 제품(L-Nicotine) 원액은 니코틴 담뱃잎 추출물(Nicotine tobacco leaf extract)'이라고 설명



하면서 연초 잎의 잎맥 사진을 게재하기도 한바(위 가.3)다)항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니코틴이 연초 대줄기로부터 추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 ○○청의 답변 중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부분은 'C에 따르면, 생산하는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 것임'이어서 C의 입장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5) C는 2019. 7. 20.경 발표한 성명서, 관세조사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답변서 등에서 연초 대줄기로 니코틴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성명서는 C가 생산한 이 사건 니코틴의 원재료에 관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C는 위 관세조사 답변 과정에서 '니코틴 생산 원재료로 사용하는 폐기연경(廢棄烟梗)은 E공사와의 폐기연경처리협약에 따라 공급받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원재료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위와 같은 성명서 등의 내용은 C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소개 PPT 자료, 홈페이지, 공개전양설명서 등을 통해 그동안 밝혀온 사업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한편, ○○연초총공사는 연초 잎을 기준 중량(50kg)에 따라 등급별로 가격을 정하여 수매하고 있고, ○○담뱃잎세잠정조례에 따라 이와 같이 수매한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연초총공사로서는 수매 가격 및 조세의 증가라는 이중 부담으로 인하여 대줄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준으로 수매금액을 산정할 이유가 없고, 연초 잎의 중량만을 기준으로 수매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K공사도 주○○○○○○○총영사관의 질의에 대하여 연초 잎 이외 부분은 구매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농가에서 줄기절단법에



따라 연초 잎과 대줄기를 함께 수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초 잎과 대줄기를 분리하는 작업은 연초점에서 수매하는 단계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연초점에서 수매한 연초 잎을 가공, 재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E공사가 '연초 잎과 대줄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 뒤 남은 대줄기를 C에게 납품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므로, C가 E공사로부터 연초 잎 가공 과정에서 폐기물로 발생한 연초 대줄기를 별도로 공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원고는 C가 농가에서 직접 연초 대줄기를 구매하기도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가구매 영수증(갑 제18호증), ○○ 농민 확인서(갑 제25호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영수증의 일부는 이 사건 물품 수입 기간 이후인 2020. 11. 17. 작성된 것이어서 쟁점 니코틴과 관련이 없고, 그 내용도 연초가 아닌 다엽(茶葉, 찻잎)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니코틴 추출을 위한 원재료 구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C 홈페이지에는 '니코틴 추출 폐기물(extracted waste)과 폐기갈간(廢棄秸秆, crop straw waste)을 사용하여 농자재 제품을 만든다'고 소개하고 있고, C의 공개전양설명서에도 '회사의 주요제품인 니코틴의 현재 응용분야는 전자담배, 살충제, 의약제조 등 세 가지 분야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 ○○ 총서도 'C는 주로 식물 중간재를 추출·판매(미생물 폐기물, 미생물 접종원, 유기비료, 셀레늄비료, 미량원소, 수용성 비료)하고 담배향(맛) 연구·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C가 농민으로부터 연초 대줄기를 별도로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살충제, 의약품, 비료 등의 농자재 제품 제조에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쟁점 니코틴 추출을 위한 원재료 구매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C가 연초 대줄기(갈간, 秸秆)로부터 쟁점 니코틴을 추출하였다는 근거로 ○○ ○○주 농업국의 답변 자료들(갑 제26, 27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자료는 ○○시 농업국의 2018년 갈간(秸秆) 종합이용과 관련된 자료로서 갈간(秸秆)을 이용한 유기비료사업 및 연료사업 등의 현황과 개선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C로부터 수입한 니코틴의 생산 재료가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닌 점, C는 갈간(秸秆)을 비료화하는 업체로 선정된 회사로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갈간(秸秆)을 이용하여 유기비료를 생산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가 C의 연초 잎맥을 이용한 니코틴 생산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C가 폐기갈간(廢棄秸秆)을 사용하여 비료 등을 생산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8) 원고는 C가 연초 대줄기를 이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C가 연초 대줄기를 이용한 니코틴 추출 기술의 특허출원에 실패한 사정에 비추어 C가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상용 기술을 실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거기에 더하여 연초 잎의 니코틴 함량은 0.5%~5.0%이고 연초의 잎맥에서 추출하는 경우의 니코틴 수율은 0.39%인 반면, 연초 줄기의 니코틴 함량은 0.06%~1.15%이고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하는 경우의 니코틴 수율은 0.03%에 불과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쟁점 니코틴을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추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원고는, ○○의 연초전매법에 따르면, ○○에서 폐기연경으로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C가 E공사에서 공급받은 폐기연경으로 니코틴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 따로 수급한 연초 대줄기로 니코틴을 생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



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 ○○총서와 ○○ ○○청의 답변에 의하면 C는 폐기연경의 처리 승인 및 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점, ② ○○의 연초전매법은 자연건조 담뱃잎과 열건조 담뱃잎만을 규율하고 있어 C가 폐기연경에서 쟁점 니코틴을 추출하는 것이 ○○의 담배 규제 체계 아래에서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만약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생산하는 것이 ○○에서 위법하다면 C로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오히려 홈페이지를 통하여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까지 하고 있는 점, ④ 설령 C가 폐기연경으로 니코틴을 생산하는 것이 ○○ 법령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가 폐기연경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가 E공사로부터 공급받은 폐기연경으로 니코틴을 생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지방세법의 소급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은 지방세법의 개정 전에 수입된 것으로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물품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쟁점 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은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하며, 피고 또한 개정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나목 등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47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등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개정 지방세법을 소급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



아들이지 않는다.

## 5. 결론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김○○

판사      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17

## 별지1

### 목 록

(금액 단위: 원)

| 연<br>번 | 신고일자          | 신고번호 | 용액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담배소비세<br>가산세 |
|--------|---------------|------|-----------|-------------|-------------|--------------|
| 1      | 2018. 12. 20. | L    | 96,600    | 60,664,800  | 26,686,440  | 18,199,440   |
| 2      | 2019. 1. 28.  | M    | 54,000    | 33,912,000  | 14,917,880  | 10,173,600   |
| 3      | 2019. 3. 26.  | N    | 126,000   | 79,128,000  | 34,808,400  | 23,738,400   |
| 4      | 2019. 4. 29.  | O    | 81,000    | 50,868,000  | 22,376,830  | 15,260,400   |
| 5      | 2019. 5. 23.  | P    | 125,550   | 78,845,400  | 34,684,090  | 23,653,620   |
| 6      | 2019. 6. 17.  | Q    | 54,000    | 33,912,000  | 14,917,880  | 10,173,600   |
| 7      | 2019. 7. 1.   | R    | 18,000    | 11,304,000  | 4,972,620   | 3,391,200    |
| 8      | 2019. 7. 22.  | S    | 72,000    | 45,216,000  | 19,890,510  | 13,564,800   |
| 9      | 2019. 8. 1.   | T    | 91,050    | 57,179,400  | 25,153,210  | 17,153,820   |
| 10     | 2019. 8. 23.  | U    | 264,540   | 166,131,120 | 73,081,070  | 49,839,330   |
| 11     | 2019. 8. 27.  | V    | 36,000    | 22,608,000  | 9,945,250   | 6,782,400    |
| 12     | 2019. 10. 23. | W    | 90,000    | 56,520,000  | 24,863,140  | 16,956,000   |
| 13     | 2020. 1. 2.   | X    | 152,940   | 96,046,320  | 42,250,770  | 28,813,890   |
| 14     | 2020. 4. 25.  | Y    | 144,000   | 90,432,000  | 39,781,030  | 27,129,600   |
| 15     | 2020. 5. 29.  | Z    | 81,000    | 50,868,000  | 22,376,830  | 15,260,400   |
| 합계     |               |      | 1,486,680 | 933,635,040 | 410,705,950 | 280,090,500  |



## 별지2

### 관계법령

#### ■ 지방세기본법

##### 제19조(근거과세)

-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조사·결정할 때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하거나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은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 제48조(과세대상)



-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피우는 담배
    - 가. 제1종 권련
    - 나. 제2종 파이프담배
    - 다. 제3종 엽권련
    - 라. 제4종 각련
    - 마. 제5종 전자담배
    - 바. 제6종 물담배
  2. 씹는 담배
  3. 냄새 맡는 담배
  4. 머금은 담배
-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9조(납세의무자)

-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사람(이하 이 장에서 "입국자"라 한다)의 휴대품·탁송품(탁송품)·별송품(별송품)으로 반입하는 담배 또는 외국으로부터 탁송(탁송)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입국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자 또는 반입한 사람이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⑤ 제54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 제52조(세율)

-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쉼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쉼련: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쉼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은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제59조(기장의무)**

제조사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⑤ 제49조 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지할 때에 담배소비세를 함께 부과지할 수 있다.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탁을 받아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며,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내역을 첨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준용한다.

####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 1. 삭제 <2016.12.27>
  - 2. 제58조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
  - 4. 제60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 5. 제6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 2.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를 제5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 3.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 5.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 제62조(수시부과)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 1.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사업 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의 상태에 있는 경우



2. 제61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 ②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발견되거나 확인되는 때에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

###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 ■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14. 1. 21.>

끝.